

# 해남 수산식품산업 거점단지 조성

해남군이 해양수산부가 실시한 '2018년 수산식품산업 거점단지 조성사업' 공모 결과 최종 선정됐다. 해남읍 안동리 일대에 들어서게 되는 수산식품산업 거점단지는 전복과 김을 주력으로 수산식품 연구 및 가공 유통을 책임지게 된다.

지난달 31일 해남군에 따르면 지역 물김생산량은 8만9,000여톤으로 전국대비 25%, 김자반은 1,600톤으로 전국 95%, 전복은 1,603톤으로 전국 대비 10%를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해남군은 그동안 수산식품

## 해남 안동리 일대 3년간 150억원 투입 수산식품 연구·가공·유통시설 완비

판로에 어려움을 겪었고 안정적인 판로 확보로 인한 소득증대의 필요성을 느꼈다. 이에 수매·보관·상품개발·가공 마케팅을 통한 수산식품 거점단지 공모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했다.

해남군은 '2018년 수산식품산업 거점단지 조성사업' 공모에 선정되기 위

해 사업계획의 명확성과 실현 가능성을 토대로 기존 생산자 위주의 사업모델에서 탈피했다.

뿐만 아니라 소비자와 연계한 6차산업형 수익모델을 통한 소비자 지향 브랜드를 구축해 지역자원 연계 및 환원수매를 통한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반영했다.

사업비는 올해부터 시설계획비 7억 5,000만 원을 포함해 3년간 150억원이 투입되며 고부가가치 수산가공 식품사업 육성을 위한 연구·가공·유통 복합시설이 들어선다.

세부적으로는 연구홍보종합센터에 20억원, 전복·자반·김 가공시설에 81억원, 원재료 보관용 냉동시설에 49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수산식품산업 거점단지가 조성되면 전복, 김자반 등 해남지역 특산품의 유통체계 다변화가 기대된다.

해남군 관계자는 "앞으로 수산식품

산업 거점단지가 조성되면 기능성 김·김자반 및 전복 가공시설, 수산물 고급화를 통해 어민소득 증대에 획기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전복, 김, 미역, 다시마, 참조기, 젓새우 등 수산자원을 활용한 고부가가치 가공식품 생산 기반을 연차적으로 확충할 계획"이라며 "생산여가의 소득 증대와 소비자 기호에 맞는 제품 생산을 위한 연구개발도 하겠다"고 밝혔다.

/해남=박병태 기자

### 내고장 일꾼



**신우철**완도군수는 1일 오후 3시 목포MBC 일요포커스 방송 녹화에 출연, 민선 7기 핵심 공약과 추진 계획을 밝혔다.



**전동평**영암군수는 1일 오전 9시 군청 왕인실에서 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8월중 정례회를 개최한다.



**이동진**진도군수는 1일 오전 10시 군청 상황실에서 실·과·소속·면장이 참석한 가운데 업무보고를 갖는다.

### 영암 청렴 머그컵 직원 배부

영암군은 동료와의 소통 분위기와 청렴문화 조성을 위해 청렴 머그컵을 제작, 전 직원에게 배부했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영암군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주관한 청렴도 평가에서 2016년과 4등급에서 2017년 3등급으로 상승하는 등 청렴군으로 안착해 간다는 평을 받고 있다.

배부된 머그컵에는 청렴군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청렴한 영암'이라는 문구를 새겼다. 언제 어디서나 청렴을 생각하게 해 스스로 청렴한 공무원이라는 자부심과 경각심을 갖도록 한 것이다.

영암군 관계자는 "눈앞에 보이지 않으면 멀어진다는 말이 있듯이 청렴 또한 계속 눈으로 보고 느껴야 경각심을 갖게 된다"며 "직원들이 청렴 머그컵에 매일 차를 마시면서 다시 한번 청렴한 공직생활에 대한 경각심을 갖길 바란다"고 말했다.

/영암=최복섭 기자

## 제10회 목포문학상 작품 공모

### 총상금 3,500만원...31일까지 접수

목포시가 전국의 신인 및 기성문인을 대상으로 제10회 목포문학상 작품을 공모한다.

지난달 31일 목포시에 따르면 목포문학상은 김우진, 박화성, 차범석, 김현 등 한국 문학을 이끌어온 선구 문학인들을 배출한 문향 목포의 문학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지난 2009년 시작해 올해로 10회째를 맞는다.

본상은 전국을 대상으로 하며, 남도작가상은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전라남도 내로 되어 있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시는 작품 소재를 남도의 자연, 역사, 문화, 인물, 해양 등의 정서가 잘 드러난 작품으로 정했고, 올해부터 시조가 새로 포함됐다.

상금은 본상 소설 1,000만원, 시(시조)·희곡 분야 각 500만원, 수필·동시 분야 각 300만원이다. 남도작가상

의 상금은 소설·희곡·시(시조) 분야 각 200만원, 수필·동시 분야 각 150만원이다.

응모작은 미발표 순수 창작품이어야 하며 소설·희곡은 각 1편, 시(시조)·동시는 3편, 수필은 2편을 제출해야 한다. 작품 접수는 1일부터 31일까지 우편으로만 가능하며 당선작은 10월 11일 발표한다. 목포시는 11월에 시상식을 개최하고 작품집을 발간할 계획이다.

공모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목포문학관 홈페이지(www.munhak.mokpo.go.kr)를 참조하면 된다.

목포시 관계자는 "우리 지역을 소재로 작품을 공모하는 만큼 목포문학상을 통해 지역문학이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많은 문학인들의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다.

/목포=박승경 기자



박우량 신안군수는 최근 영상회의실에서 친환경농업인연합회 17명과 간담회를 가졌다.

## “친환경농산물 브랜드 경쟁력 필요”

### 박우량 신안군수 친환경농업인과 간담회

박우량 신안군수가 민선 7기 취임 이후 친환경농업인 연합회원과 간담회를 갖고 친환경 농업 내실화를 당부했다.

지난달 31일 신안군에 따르면 박우량 군수는 전남 영상회의실에서 친환경농업인연합회 17명과 농업인 단체로는 처음으로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친환경농업 내실화를 위해 다양한 친환경농업 육성정책이 제시됐다.

특히 박우량 군수는 임원진들에게

“지금까지는 인증면적 확대 등 양적 중심의 친환경농업에 중점을 뒀지만 앞으로는 유기농 중심의 내실 있는 친환경농업으로 방향을 전환해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군수는 “신안의 청정한 좋은 환경, 맑은 공기의 질과 토양, 오염되지 않은 수질 등을 알리자”고 말한 뒤 “그들이 신안의 친환경농산물의 우수성과 차별성을 인정하고 스스로 찾도록 해서 상품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경쟁력을 갖춰 나가야 한다”고 역설

했다.

박 군수는 “친환경 벼를 전문적으로 도정하는 RPC시설을 지원하고, 농업인이 유기농업을 실천하면 돈이 된다는 생각을 스스로 가질 수 있도록 하자”고 밝혔다. 이를 위해 “새로운 친환경농업시책인 수매제도개선과 학교급식지원, 낙도민 유기농산물지원 등을 발굴하고 지원해 신안군을 전국 최고의 친환경농업 선도 지역으로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신안=이주열 기자

### 전동평 영암군수 세일즈행정 광폭행보

전동평 영암군수가 연일 이어지는 폭염 속에서도 국비확보를 위한 광폭행보를 보이고 있다.

전동평 군수는 최근 국회를 방문해 지역현안사업의 타당성을 설명하고, 정부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직접 발

로 뛰는 ‘세일즈 행정’을 펼쳤다. 국회를 방문한 전 군수는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의 타당성과 지원 필요성을 설명하고 구체적인 추진 계획을 설명하며 선정을 적극 건의했다.

전 군수는 또 지역 대표 브랜드인

매력한 중심의 한우브랜드 육성과 생산기반의 확대 조성 등을 중심으로 지역 특화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사업들을 건의했다.

전동평 영암군수는 “지역 현안사업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발로 뛰겠다”고 밝혔다.

/영암=최복섭 기자

### 구독신청 및 기사제보

- 본 사 010-4601-5323
- 목 포 010-3272-2765
- 011-632-0323
- 010-3635-6777
- 신 안 010-4627-1472
- 영 암 010-4624-8409
- 진 도 010-3624-4777
- 완 도 010-5619-7020
- 해 남 010-8181-2627
- 강 진 010-6646-1241

## 완도 을 상반기 평생교육 성과

### 공모사업 통해 90개 강좌 운영 3천명 참여

완도군이 올해 상반기 시행한 평생교육 사업이 큰 호응을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31일 완도군에 따르면 2018년 상반기에 성인문해교육 등 2건의 공모사업 선정과 90개의 다양한 강좌를 운영해 3,000여 명의 군민이 참여하는 성과를 거뒀다.

주요 평생 프로그램은 성악아카데미, 생활 도자기 공예, 부모가 만들어 주는 내 아이 그림책 등 늘배움 강좌를 비롯해 건강관리, 약용식물관리사, 플롯 교실 등 군민 행복 증진을 위한 총 57개 강좌였다.

완도군은 전남평생교육활성화공모사업에 선정돼 도비 1,600만 원을 지원받아 ‘찾아가는 평생교육 강좌’와 ‘형

복원자리 창출 지원’ 과정에 100여 명이 참여하는 성과를 냈다. 또 비문해, 저학력 성인을 위한 성인문해교육 공모사업에도 선정돼 오는 12월까지 250명을 대상으로 한글 교실, 기초정보화 교실 등을 운영한다.

하반기에는 단기 고소득 입산물 버섯대학을 시작으로 9월 평생교육원 운영과 10월 여성 직업 훈련, 11월 자기개발 자격증 과정과 명사 초청 강좌, 12월 평생학습 축제가 이어진다.

완도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군민 선호도 조사를 통해 폭넓고 다양한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발굴, 군민들에게 배움의 행복을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완도=최규욱 기자

## 클릭! 고향 소식



### 영광 한방 어린이 건강교실

영광군은 최근 백수어린이집에서 한방 어린이 건강교실 수료식을 가졌다.

한방 어린이 건강교실은 저출산 시대 건강관리와 질병예방에 대해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건강 취약군인 어린이의 잠재적인 건강관련 문제를 조기 발견하기 위해 운영됐다.

보건소 관계자는 “학부모와 자녀가 함께하는 한의약 체험 프로그램으로 확대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영광=곽용순 기자



### 나주 예비귀농인 농촌 체험

나주시는 최근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서울시민 45명을 초청해 1박 2일 일정의 농촌·문화체험을 가졌다.

농촌·문화체험은 2017년 나주시와 서울시가 체결한 지역 상생발전 우호교류 업무협약의 일환으로 수도권 지역 예비 귀농·귀촌인에게 농촌생활에 필요한 정보와 지역의 문화체험 활동을 제공한다.

이번 체험은 귀농정책 소개 및 사례 발표, 귀농선배와의 농정체험 등으로 진행됐다.

/나주=이재순 기자



### 함평 폭염 피해예방 점검

함평군 읍면단은 최근 무더위 쉼터 지정된 6개소를 방문, 폭염예방 시설을 점검했다.

해보면도 관내 25개리 29개 경로당 및 마을시장을 직접 찾아 미리 준비한 얼음물을 배부하고 무더위쉼터 운영 상태를 살폈다.

나만중 해보면장은 “현장 중심의 예방활동과 폭염대비 행동요령 홍보를 강화해 폭염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함평=윤예중 기자



### 장보고배 비치발리볼대회

제17회 장보고배 비치발리볼대회가 최근 완도 명사십리해수욕장 일원에서 열렸다.

완도군 체육회가 주최하고 완도군 배구협회가 주관한 이번 대회는 전국에서 총 66개 팀 500여 명의 선수가 참가해 열띤 경쟁을 펼쳤다.

남자클럽부 1위는 영암 금당아일랜드팀, 여자클럽부 1위는 광주 오리엔티어클럽팀, 장년부 1위는 광주쌍암클럽팀이 차지했다.

/완도=최규욱 기자